

좋은정치를 위한 열린 토론회

- '선거연합' 을 중심으로

	2010 3월 18일 목요일 오후 7시30분	
장소	성미산마을극장	
주최	마포풀뿌리좋은정치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행동, 여성민우회, 환경정의, 녹색교통, 마포구 국민참여당, 마포구 민주노동당, 마포구 진보신당	
행 사 내 용		
열기	각종 동영상 보기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 김성섭(마포풀뿌리좋은정치네트워크)
1부	내용	마포구 지역정책 소통하기
	형식	게시판토론
	진행	조경민(마포풀뿌리좋은정치네트워크)
2부	내용	마포구 지방선거 대응 방향(공선본 구성)에 관한 토론
	형식	각 단위 기본 발제(5분) 및 참석자 토론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성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희망과대안 사무처장) - 위성남(마포풀뿌리좋은정치네트워크) - 김철(국민참여당 마포구위원장) - 윤성일(민주노동당 마포구 위원장) - 정경섭(진보신당 마포구당연합의회위원장)



적극적인 참여가 결정적 변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희망과대안 사무처장)

1. 중간선거, MB심판 큰 흐름

“반이명박이라는 정치적 공간은 큰데, 정치사회적 리더십 세력 없음”

- 용산사태, 미디어법, 4대강, 세종시, 무상급식(부자급식)
- 하지만 민주진보진영은 역량을 키우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음
 - : 서울시(오세훈, 원희룡 VS. ---), 경기도(김문수 VS. 김진표, 유시민---)
- 8명 뽑는 선거 : 인지도 중심의 선택
- MB : 남북 정상회담에 준비하는 발표, 월드컵 분위기
- 한명숙 재판, MB 독도발언, 4대강, 무상급식, 세종시, 김길태 등 집권여당에 불리한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심판여론으로 결집되지 못하고 있음

2. 시민(유권자) 권리가 확장되는 선거구도

[효과] 유권자 참여확대, 정치구도의 변화

- 2002년, 노사모 방식의 정치실험 / 노무현, 민주당 / 국민참여경선
- 유권자들의 보다 확대된 참여
- 유권자 : 정당 : 후보 / 소비자 : 기업 : 상품
- 국민공천배심제, 시민공천배심제
현재 진행상황
 - 정당 : 여론조사 + 공론조사 혹은, 국민참여경선, 시민공천배심제

3. 가치와 정책에 기반한 연합정치

- 한국사회의 정치지형
 - : 보수40%, 진보30%, 중간층 30%

: 흡수를 위한 연합

-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가치와 정책 공유와 합의에 기반한 장기적 구도 만들기
- 민주당의 양보, 진보정당의 대승적 결단
- 1차 정책합의문
- 5당 합의문(3월 4일) : 기초의원 2, 3인 선거구의 경우
- 중요한 것은 연합정치가 곧 +a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님
- 유권자운동이 결합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4. 2012년을 준비하는 선거

- 총선과 대선

대응

1. 정치연합(5+4) 협의 진행 상황

- 진보신당 문제를 제외하면 일정 부분 내부 논의가 진척된 부분이 적지 않아 15일 시한을 지켜 내일 쏘 추가 합의 발표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 진보신당은 광역문제에서 걸려 진척이 힘든 상태이나 일단 진보신당을 고려한 채 4당이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위하여 노력중입니다.
- 여전히 호남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 : 민노당은 호남의 일정부분 타결 없이 다른 지역의 타결을 선언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 : 민주당은 양보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 : 참여당은 호남에서 민주당과 협력하는데 대한 당내 논란이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 여타 미진한 부분과 이 부분을 집중하여 오늘밤 다시 최종협상을 가지기로 함

2. 유권자운동

1) (가칭)2010유권자희망연대

- 정책운동, 정책협약
- 전국유권자운동 네트워크
- 유권자행동
 - : 대규모 캠페인 - 4대강, 무상급식 등
 - : 투표참여운동

2) 유권자운동 조직

3. 교육감 선거

- 서울시장과 러닝메이트? 선관위 정책연대 금지
-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대응을 위한 범시민추대위

?

1. 자율적인 협의, 합의 구조 만들기

- 주민(조직), 야5당, 시민단체 등이 호혜적 논의를 통해 정책, 후보 등 합의
- 진일보한 주민자치실험 → 내부 역량 강화, 장기적 기반 형성

2. 마을 단위에서 유권자 캠페인 준비

- 4대강, 친환경 무상급식, 성미산 살리기 등
- 대규모 공동캠페인 참여 / 4월 17일 4대강 캠페인, 5.18 행사 등

3. 선거이후에 대한 공동의 책임 설정

- 후보자와 마을운동 간의 책임 있는 약속

주민이 마포구 지방선거를 바라보며

(마포폴뿌리좋은정치네트워크)

1. 임하는 목표 및 입장

- 성미산마을이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목적은? : 주민참여 자치(정치)를 이루기 위함.
- 과정 : 2009년 8월부터 '주민자치실현모임'을 만들어, 주민 참여 자치를 이루기 위해 2010년 지방선거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논의해 왔음. 또한 작년 10월부터 마포구 예산을 분석하면서 '참여예산제'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음.
- 지방자치에서 왜 주민참여제가 필요한가? : 주민참여는 좋은 후보를 통해, 좋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탄생하고, 이를 통해 좋은 정책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선거부터 시작해 일상적인 구정의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가 실현되는 '과정으로서의 구정 운영'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
- 주민참여제를 이루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 지금까지의 정치는 주체와 대상의 이분법 속에서 좋은 정치집단이, 주민을 대상으로, 좋은 정책을 실현하자는 것이었음. 그러나 앞으로의 정치는 그 대상자(주민) 스스로가 '참여'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정치의 주체로 나서는 것을 의미함. 즉 훌륭한 '깃발'과 올바른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참여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주민 스스로 주체로 나서게 될 것.
- 이것은 주민 참여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의 단초를 마련하자는 것. 결론으로, 올 해 지방선거는 '주민 참여 자치'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봄.

2. 현재 각 단위의 상황과 후보 조정 방안

- 성미산마을의 '주민후보'를 인정해 준데 대해 제정당에게 감사를 드림.
- 지난 3월 10일, 주민후보 지원자 등록 결과 단일후보 등록.
- 후보토론회(22일)와 마포폴넷 회원투표(26~27일)를 통해 27일 주민후보 선출 계획.
- 연대단위 내에서의 후보 조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 방식을 우선하되 주민 경선을 통해 진행되어야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봄.

3. 공동선거본부 구성의 수위와 바라는 바

- 옳고, 누가 그른가의 가치 척도로 서로 경쟁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봄.
- 중요한 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모아내느냐 일 것.
- 현재 조직된 주민 역량으로는 1개의 구의원 선출단위에 대응할 정도의 수준이지만, '연합'을 통해 마포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힘과 대안을 구민에게 제시하게 되기를 기대. 공선본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마포를 흔들 수 있는 힘을 모으는 방법은 '연합'하는 것. 공선본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때문에 사전에 조정된 공동 후보를 만들고, 당선을 위해 제 세력이 조직적으로 결합해야 할 것.
- 또한, 선거이후에도 이러한 연대의 힘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가장 좋은 모습은 공동 후보에 대해 소속 정당을 뛰어넘어, 서로 도와야 함. 이 과정 속에서 서로의 신뢰가 드높아지고, 이후 협력의 수위가 높아질 것임.
- 여러 정당의 공동 후보들이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 속에서 주민들의 신뢰도는 극대화될 것임. 즉, 자신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주민을 바랄 것.
- 결과적으로 유권자는 자신이 누구를 찍어야 할지를 한 눈으로 보게 됨.(연합의 라인업을 눈으로 보여주자.)

4. 제안 사항

- 공선본 준비(실무)위원회를 구성하자.

/민/참/여/당

- (국민참여당 마포구위원장)

1. 6. 2 임하는 입장과 목표

힘을 모아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6.2 지방선거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백지화, 4대강 환경 파괴, 언론 장악, 민생 외면, 재정 파탄 등 잘못된 정책을 멈춰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도, 수백만 명이 전직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며 조문 행렬에 나서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거짓말로 당장의 위기만을 모면하려 할뿐 진정한 반성과 근본적인 변화를 거부해 왔습니다.

정치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자기식대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현 정권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권력의 수족 노릇을 하고 있는 지방권력을 빼앗아 다시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지방권력을 되찾으면 MB의 세종시, 4대강 질주를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당은 한나라당에 승리하기 위한 야5당과 시민단체의 선거연합에 앞장서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선거연합을 이루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합의된 결정을 흔쾌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가 이번 선거연합이 지방연합정부로 이어져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 정권에 맞서 승리할 것입니다.

6월 2일 국민을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 지방의원으로 섬기며,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를

다시 열겠습니다.

2. 선거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견

- 현재 구청장 후보 1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6명이며, 중앙당의 <선거후보 시민공모제> 실시에 따라 이후 후보군은 추가될 여지가 있음.
- 선거구별 후보 단일화는 각 당과 지역단체의 논의를 통해 사전 조정을 진행한다. 사전 조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합리적인 경쟁의 원칙과 방법을 통해 단일화합을 원칙으로 한다.
- 경쟁방식의 단일화 방안에 대한 결정은 이후 구성될 마포공동선거기구의 의견을 중시한다.
- 민주당과의 각급 선거단위 후보단일화는 현재 5+4의 논의 과정과 합의를 존중하며 이를 토대로 단일화 협상에 임하며, 마포공동선거기구의 단결과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공선본의 구청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들이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마포 공동선거본부 구성에 대한 의견

- 토론회에 참여한 제정당, 지역주민단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선본을 구성을 준비하며 이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내 단체와 조직들에 참여를 제안한다.
- 공선본 발대식 준비를 위한 기획, 실행단위를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공선본을 결성한다.
- 공선본은 사전 조정된 후보들을 공선본 후보로 존중하며, 조정되지 못한 후보를 단일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노력한다.
- 공선본 발족은 그 취지에 맞게 공통의 정책과제, 공선본 후보 발표, 공동의 선거운동을 공개한다.
- 공선본은 단지 반한나라 연대를 통한 선거 승리를 위해서만 결성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거승리이후 마포구라는 기초단위 지방정부를 함께 책임지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질적인 연합체의 모태가 되어야 한다.

- 비하면 연합운영에서 제한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방연합정부라는 근본취지이고, 그 정신에 충실하면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 이를 위해 마포구청 운영에서 제정당, 시민단체, 지역주민조직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마포구청 정책자문위원회'를 공동구성하고 이를 제도화하며 구청의 개방형 공직 임용과 산하기관 인사에 참여할 수 있는 단위를 구성하며, 마포구의회 의원들이 지역주민에 충실 하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마포구청감사단' 구성과 운영을 제안한다.

/보/신/당

- (진보신당 마포구당원협의회 위원장)

1. 마포구당원협의회 지방선거 목표

- 복수의 당선자를 마포구 의회로 진출시켜 생활 속의 진보정치 실현을 위한 교두보 확보
- 지방선거 정책공약 마련을 통해 향후 진보마포의 중장기 로드맵 확보 및 활동계획 수립
- 당원참여 형 선거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지역 정치조직에 걸맞는 조직체계 마련의 기틀
- 현재 510명의 당원을 선거 이후 600명 이상으로 확대해 구성원이 함께 지역내에서 다양한 진보의제를 실천하며 실현시킴

2. 2010년 지방선거 마포구당원협의회 선거 전략

- 마포구당원협의회 지방선거 전략 방향

- ① 전략선거구에 집중해 향후 지역정치의 거점으로 성장시킴
 - 성산2동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와 빈곤문제를 알려나가며 선거 대응, 이후 거점 마련
 - 민중의 집이 위치한 망원1동에 후보를 출마시켜 망원동 지역에 새로운 지역공동체 기반마련
- ② 서울시장 후보를 선두로 한 패키지 후보 전략 구사. 선거구도에서 <지방토호정치, 보수기득권 특권정치 VS 서민중심 지방정치> 구도를 형성
 - 서울시장 후보의 선전을 바탕으로 지역 출마후보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는 전략 구사.
 - 대중적으로 진보신당이 대안세력으로 인식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선거에서 기존의 지방토호정치, 보수 기득권 부패, 특권정치에 대항하는 지역서민정치 구도를 만들어 대응
- ③ 당원이 함께 치르는 선거
 - 선거운동시 조직, 정책, 홍보, 재정마련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당원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기획

- 모든 당원들에게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선거기획
- ④ 지역단체들과의 적극적 협력을 모색해 지역 내 진보신당 위상 강화
 - 기존에 연대했던 노동조합 및 단체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 속에서 공동 선거 대응
 - 마포지역 다양한 단체와 접촉해 당지지를 이끌어 내고 이후 새로운 지역연대를 형성

3. -연합 방침

< 2009 12월 임시대의원 대회 결정사항 >

- 당은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진보정당 및 제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진보대연합 실현
- 진보정당 및 제시민사회 단체 후보와 선거구가 겹칠 경우 적극적으로 예비경선을 제안해 이를 통한 단일후보 출마

- 최근 진보신당 중앙당은 5+4 회의에서 탈퇴했음
- 진보신당 광역시도당의 경우, 울산과 대전에서 협상 잠정 중단 선언을 했음
- 진보신당은 선거연합을 반대하지 않고 있음. 다만, 진보신당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협상에 대해서 파기 혹은 중단선언을 한 것임
- 마포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상호간의 존중이 있다면 언제든 선거연합 논의가 가능함

4. 마포지역 공동선대본부에 대한 입장

- 지난해 12월 마포구당원협의회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비추어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과의 공동선대본 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 진보신당 마포구당원협의회는 선거연합 논의에서 특정 세력(정당)이 배제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
- 특정 세력이 공선본 내 후보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예비경선 탈락 등)되어 단 한명의 후보도 출마시키지 못할 경우 공선본의 의미는 무색할 것임
- 이는 공동선대본에 참여하는 특정 정당 혹은 세력이 단 한명의 후보도 내지 못하는 상황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뜻함
- 현재 진보신당 마포구당원협의회는 망원1동-서교동과 성산2동-상암동에 기초의원 후보를 출마시켰음. 이중 성산2동-상암동의 경우 민주노동당 후보와 선거구가 겹치는 상황
- 민주노동당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는 양당간 협의를 통해 반드시 후보단일화를 이룬

입장

망원1동-서교동 기초의원 후보의 경우, 공동선대본 협상에 임하는 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의 단일 후보로 추진받길 원하고 있음